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5.12.12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인도

글로벌 빅테크 자본 유입: 강화되는 인도 투자 매력

- 아마존: 2030년까지 인도에 35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도 시장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한층 강화
- 마이크로소프트: 2025~2029년 인도에 총 205억 달러를 투자하며 AI·데이터센터 확대를 본격 추진
- 인도향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안정적인 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인도: 비중 확대 유지

아마존의 인도 투자 가속화

매년 인도에서는 중소기업·판매자 생태계의 디지털 성장을 지원하고 인도 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삼바브(Amazon Smbhav)가 개최된다. 여섯 번째로 열린 올해 12월 행사에서 아마존 경영진은 인도 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총 3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마존이 2023년에 제시한 향후 투자 계획(150억 달러) 대비 200억 달러 증가한 규모로, 아마존이 인도 시장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 더욱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 15년(2009~2024년) 동안 누적 400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한 바 있으며, 향후 투자금은 이커머스, 퀵커머스, Prime Video, 콘텐츠, 금융 서비스 등 인도 내 모든 사업 부문에 폭넓게 배분될 예정이다.

아마존이 계획대로 향후 5년간 350억 달러를 집행할 경우 연평균 투자액은 70억 달러이며, 이는 FY2024년 인도의 총 직접 투자(FDI) 유입액의 약 9.9%에 해당하며, 향후 인도의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에도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마존이 과거 14~15년간 집행된 400억 달러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35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발표는 아마존이 인도 소비·디지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번 35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인도 퀵커머스 시장을 겨냥한 투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퀵커머스가 10~30분 내 배송 기반의 도시권 식료품·생활용품 중심 서비스인 반면, 기존 아마존 이커머스는 전국적 물류망과 폭넓은 상품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사업 구조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아마존이 인도 퀵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존 사업 기반을 보완하고 경쟁 강도를 조절하는 방어적 대응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향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퀵커머스보다는 AWS 인프라, Prime Video·콘텐츠 제작,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에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아마존의 향후 인도 투자 전략 요약

항목	내용
행사 개요	매년 인도에서 중소기업·판매자 생태계의 디지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아마존 삼바브(Amazon Smbhav) 개최
2025년 행사	여섯 번째 행사, 12월 개최
신규 투자 발표	2030년까지 인도 투자 규모를 총 350억 달러로 확대
증가분	2023년 발표한 향후 투자 약속(150억 달러) 대비 200억 달러 증가
기존 누적 투자	2009~2024년 15년 동안 누적 400억 달러 투자
투자 배분 대상	이커머스, 퀵커머스, Prime Video, 콘텐츠, 금융 서비스 등 인도 내 모든 사업 부문
연간 투자 규모 가정	향후 5년간 350억 달러 투자 시 연평균 70억 달러
FDI 대비 규모	FY24년 인도의 총 FDI 유입액 대비 약 9.9%

자료: 아마존,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아마존의 인도 투자 내역 요약

구분	기간/연도	투자 금액	내용/비고
누적 투자	2009~2024	400억 달러	아마존이 15년간 인도에 투입한 누적 자본
기존 투자 계획	2023년 발표	향후 150억 달러	2030년까지 추가 투자 약속
신규 투자 계획	2025년 발표	향후 350억 달러	2030년까지 확대된 신규 투자 결정 (Smbhav 2025 행사)

자료: 아마존,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에서 가속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데이터센터 전략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최근 인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향후 2년 동안 인도 전역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계획은 Azure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 AI 개발 생태계 조성, 현지 인력 대상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 내 디지털 전환 수요의 고속 성장을 고려한 초기 단계의 투자 성격을 갖는다.

이어 12월에는 사티야 나델라 CEO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가로 17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존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 지역에서 발표한 단일 투자 중 가장 큰 규모로, 인도 내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 등이 핵심 목표이다. 이 금액은 앞서 발표된 30억 달러와는 별도로 집행되는 투자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2029년 인도 투자 규모는 총 205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표 3. 마이크로소프트 인도 투자 계획

구분	기간/연도	투자 금액	내용/비고
AI·클라우드 초기 투자	2025년 1월 발표	30억 달러	향후 2년간 인도에서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Azure 리전 확대, AI 생태계 강화 등)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투자	2025년 12월 발표	175억 달러	2026~2029년 집행 예정, 인도 내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확장
총 계획된 인도 투자액	2025~2029년 누적	205억 달러	30억 달러 + 175억 달러, 별도 투자로 합산 가능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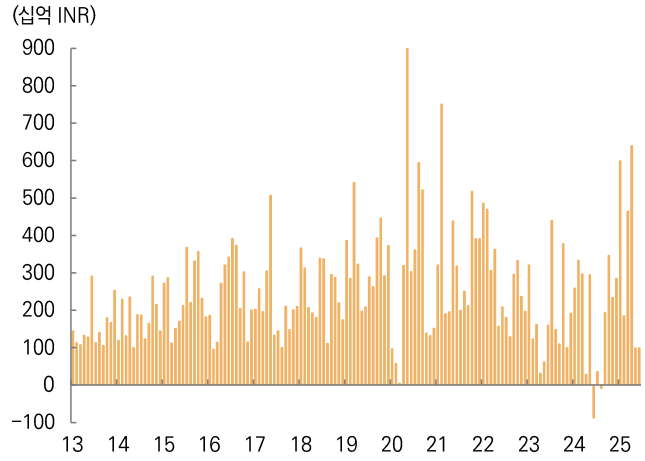
단기 주식 시장 자금 이탈에도 불구, 인도로의 외국인 장기 직접투자는 견고

IPO 등 신규 발행시장을 제외한 인도 주식 유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FII·FPI)들은 밸류에이션 부담, 주요 인도 기업들의 단기 이익 모멘텀 둔화,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간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최근 투자 비중을 축소해왔다. 머니컨트롤(Moneycontrol)에 따르면,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2025년 1월부터 누적 2.5조 루피 이상을 순매도하며 인도 주식 비중을 줄였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누계 기준 외국 투자자들의 인도 내 신규 주식 발행 및 직접투자 규모는 3.9조 루피 수준으로, 여전히 견조한 투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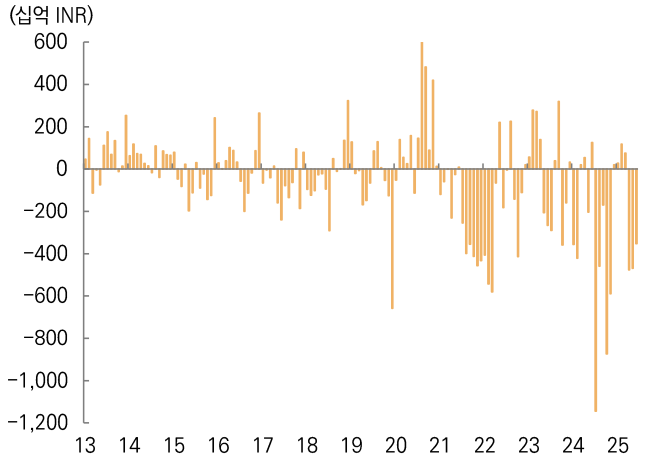
향후 미국–인도 간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회복될 경우, 주식 유통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내수 경기 회복은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외국인 월별 직접 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외국인 월별 주식 유통 시장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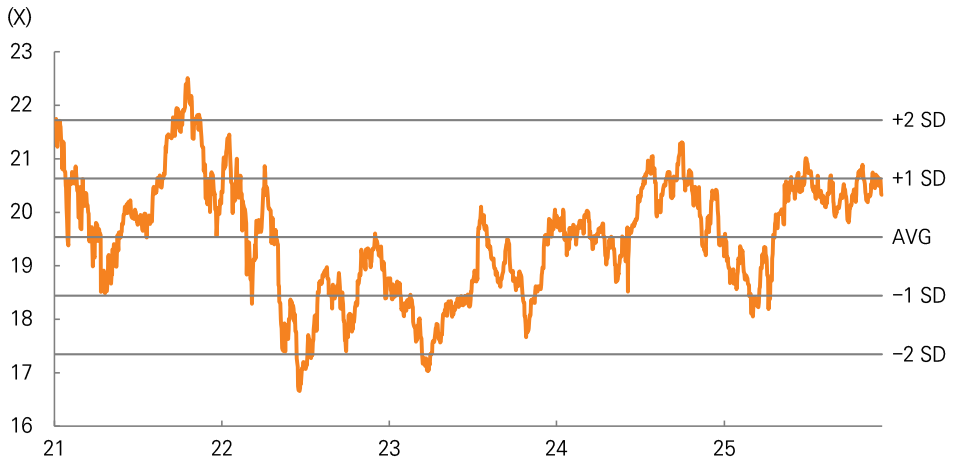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비중 확대 유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존재하나, FY2Q26부터 시작된 이익 모멘텀 개선 및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또한, 인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유지한다. 모디노믹스 3기(2024~2029년) 정부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GST) 인하, 금리 인하 등 내수 중심의 소비 진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효과는 2025년 4분기(FY3Q26)부터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Nifty50 12개월 선행 P/E 표준편차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1	-1.2	1.0	8.0	6.2	2.3	-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4	-2.4	0.7	2.0	12.8	6.3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3	-2.5	1.7	14.6	8.9	-2.5	65.8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0.1	-1.4	0.8	7.3	5.8	2.0	-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0.7	-1.4	-0.9	0.3	-4.5	-18.1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0.3	-3.0	0.0	10.1	5.5	-4.1	-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0.3	-2.4	-0.8	7.4	2.3	-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0.0	-1.3	-1.0	3.1	1.5	-8.1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1.5	-3.4	-2.9	-1.6	5.4	-9.4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0.2	-1.6	0.8	6.7	4.8	0.1	35.2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0.1	-0.9	2.4	6.1	5.4	-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1.8	-4.4	-2.6	0.7	-2.2	-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